

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영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다. 영성,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.

**첫째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내 정체성에 대한 누림이 영성이다.**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, 운명, 저주, 지옥에서 해방 받은 것도 엄청난 축복이다(롬8:1-2). 더 중요한 것이 있다.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갖게 된 것이다(요1:12, 롬8:15-17). 성령이 함께 하고(요14:16-18), 천사가 보호하고(히1:14), 흑암 저주 세력들이 도망가게 되어 있다(눅10:19). 내가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누려도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것이다. 사자는 싸우지 않아도 모든 동물이 그 모습만 보고도 도망간다. 나중에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도망간다.

**둘째는 내 안에 함께 하신 성 삼위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비밀이 영성이다.**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이다. 성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것이다.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신 것이다.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지금 내 안에,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. 그것이 임마누엘이다. 이 성 삼위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을 하느냐는 것이다. 부모와 자식 사이도, 부부 사이에도 소통이 부족하고 안 되면 오해하고, 모든 것이 다 막힌다(모든 것이 불통)

**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고전 2:10-13에 세가지가 깨달아진다고 했다.**

① **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신다(10절).**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깨달아진다(천명).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뜻이 깨달아진다(소명).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인다(사명). 작은 일을 해도 이것을 깨닫고 하면 절대적 역사가 된다.

② **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(12절).**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주시는데, 그것이 안 보이면 다 놓치는 것이다. 여러 이유로 영적 상태가 충만하지 못하고, 영적 감각이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.

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문제가 와도 문제로 보이지 않고, 거기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. 낙심할 이유가 없다  
③ **영적인 판단력이 생긴다(13절).** 이것이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성령이 주시는 축복인지가 구별되고, 말씀이 깨달아지고, 그 하는 말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. 판단력이 없으니 늘 속고 이용당한다. 말씀이 깨달아지면 거기서 구원의 비밀을 체험하고, 성령의 지혜를 얻는다. 그때 말에도 능력이 나타난다(삼상3:19). 말에 지혜가 있고, 사람에게 힘을 주고,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, 한 말은 성취된다. 이런 사람은 당연히 성공자의 삶을 산다.

**셋째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.** 똑같은 일을 해도 영성이 있는 사람은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다.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, 실제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. 본문에서 사무엘을 보라.

9절에 “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”고 했다.

10절에 “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큰 천둥을 쳐서 어지럽게 하니 온 블레셋이 흩어졌다”고 했다.

13-14절에 “여호와와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거기에 평화가 있었다”고 했다.

우리 인생에 이렇게 원수들이 끝날 것이다(롬16:20). 사무엘은 어떻게 이런 영성을 훈련하고, 체험할 수 있었는가?

#### 1.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계속 깨닫고 훈련받는 것이 무엇인가?

그냥 교회 생활이 아니다. 단순한 신앙 생활이 아니다. 그가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다.

##### 1) “언약”이 무엇인가?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체험한 것이다.

어린 시절 사무엘이 어머니와 주의 종 엘리와의 합의 아래 성전으로 보내졌다. 거기서 무엇을 배웠을까?

성전을 위한 여러 일을 했을 것이다. 삼상3:3에 보면 사무엘은 늘 언약궤 옆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.

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?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다.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 곧 말씀의 약속,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권능의 약속, 만나는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겠다는 삶의 약속이다.

##### 2) 말씀을 듣고,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. 그것이 믿음이다.

히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이다. 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.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지 안 이루어질 것이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것이다(요일5:10)

이 언약이 내 안에 각인, 뿌리, 체질된 만큼 거기서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,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,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. 내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이 내게 온다. 그때 전도도 되어지는 것이다.

##### 3) 그 언약의 핵이 뭐냐? 그리스도다(요5:39, 눅24:44)

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것이다(요19:30). 그 분이 내 안에 사신 것이다(갈2:20). 그 분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것이다(벧전2:9). 성령의 능력으로 내 모든 것이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(행1:8). 이 그리스도로 행복, 충분하고,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보라. 그가 세상 살리는 세계복음화 주역이 되는 것이다.

#### 2.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,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한 사람이다.

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, 그 분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(요10:3-5).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가?

##### 1) 말씀을 들을 때이다. 삼상3:21에 “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”고 했다.

강단의 말씀을 목사의 설교로 들으면 속는 것이다.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내가 살고, 내 영성이 회복되고, 내 인생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. 거기서 나를 축복하시고, 응답하고자 하시는 내게 주시는 언약을 찾아내라.

##### 2) 평상시에 무시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훈련을 하라. 이것이 묵상이다. 다윗도 이것을 잘했다(시19:14)

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한 것이다. 그래서 시19편에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한 것이다.

##### 3) 내게 어려운 시간이 올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기에 좋은 시간이다.

대부분 문제에서만 빠져 나오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는지를 찾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.

지금 어렵고 외로운 시간인가? 영성을 키우고, 믿음을 키우는 최고의 시간인 줄을 알고 감사하라

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다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오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(시62:1-6)

#### 3. 모든 부모와 주의 종과 교사, 중직자들의 책임이 있다. 영적 지원이다.

##### 1) 사무엘에게 어머니의 기도 지원과 믿음의 지원이 있었다.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낸 것이다.

##### 2) 주의 종 엘리의 축복과 인턴쉽 지원이 있었다. 모든 교사, 중직자들이 이 사명을 같이 깨달아야 한다.

사무엘을 잉태할 때부터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다(삼상1:17). 영성이 뛰어난 종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주의 종으로 세워 사용한 것이다.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인턴쉽을 해 준 것이다(삼상3:8-9).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자란 사람이기에 자기도 나중에 다윗을 기름 붓고 축복하는 것이다.

**결론-** 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부터 붙잡고 누리라. 내 안에 성 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라.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라. 평생의 시간표로 훈련해야 한다. 영성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한다.